

김준의 갯살이



놈의 나이 한 살 먹었소

어제는 치과에 다녀왔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 소견이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문득, 며칠 전 육지에서 멀지 않은 외딴 섬에서 만난 여든한 살 드신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해남 남장이 고향인 할머니는 일제 말기 처녀 공출을 피해 작은 섬으로 시집을 왔다. 선친이 이곳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가구 수가 10가구도 되지 않은 섭선도 없는 작은 섬까지 처녀 공출을 하려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남장에서 가깝고 친척이 살고 있어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은 결혼 후 10년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그 사이에도 병원을 오가길 수차례, 결혼을 해서 내내 가정노릇을 해야 했다. 다행이 공출은 피했지만 짚음은 간 곳 없고 외딴 섬에서 백발이 성성한 섬지기가 되었다. 그 사이 섬 토박이들은 모두 섬을 떠났다. 절새가 덩새 되는 세상이라지만 할머니보다 오래 머무른 사람은 없다.

요즘 할머니의 유일한 즐거움은 양지마루에 앉아 고양이와 함께 해바라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섬을 찾아간 날도 할머니

는 그렇게 앉아 계셨다. 점심때 먹으려고 가지고 간 바나나와 굴을 할머니와 나누어 먹었다.

나이가 몇이냐고, 바나나를 드시다 갑자기 나이를 물자 '놈의 나이 한 살 먹었어'며 대답했다. 저읍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남의 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할머니는 내 궁금증에 답이라도 하듯 말을 이었다. 여든 살까지는 자신의 수명을 다한 것이요. 이후부터는 나이를 사는 것이라고.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인간수명과 관련된 우화가 떠올랐다. 조물주가 소를 만들고 60년을 살도록 했다고 한다.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일만 해야 한다고 했다. 소가 말했다. 너무 길다고 30년만 살겠다고, 다음에 개를 만들고 30년을 살라고 했다.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집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개가 말했다. 너무 길다고 15년만 살겠다.

다음에 원숭이를 만들고 30년을 살도록 했다.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재물을 떨어야 한다고 했다. 원숭이가 말했다. 너무 길다고 15년만 살겠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고 25년을 살도록 했다. 단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었다. 사람이 말했다.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모두 60년을 전부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인간은 25살까지는 그냥 살고, 55살까지는 소처럼 일만 하고, 퇴직해 15년은 개처럼 집만 보고, 15년은 원숭이처럼 손자들 앞에서 재물을 펼며 살다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삶은 어떤가. 스무 살까지는 우화처럼 그저저럭 살았다. 부모가 계셨으니 가능했다. 결혼을 한 후에는 자식을 낳고 10년은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그리고 남편이 떠났다. 고칠 수 없는 병을 앓았으니 별도리가 없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도 하나 둘 섭을 떠났다. 중학교가 없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큰 집에 텔렁 혼자 남았다.

남편이 이승에 남겨준 것은 작은 집과 자식들 그리고 자그마한 산비탈 밭뙈기였다. 산을 일궈 고구마를 심고, 갓비워에서 미역과 뜽을 뜯어 생활했다. 자식들은 잘 커 주었다. 국가공무원이 되었고 큰 회사에 취직도 했다. 정말 소처럼 일도 하고 개처럼 집도 지키며 살았다. 때론 집을 팔아 버리고 헛울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행여나 자식들이 팔자고 하면 더욱 서운해 할 사람은 할머니였다. 남편

을 보내고 자식들과 살면서 물에서 물을 길러오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은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하다 중간중간 자신이 직접 지은 안채를 바라보기도 했다. 할머니의 눈빛을 가늠할 수 없었다. 바깥채 가마솥에는 산에서 캐온 약초들이 가득했다. 장작을 지펴 쭉 삶아 약불을 내서 자식들에게 보내려 준비하고 계셨다. 매년 겨울이면 하는 연례행사였다. 저마다에는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매주가 대룡대룡 달려 있었다. 할머니는 조물주가 일하라고 준 나이를 훌쩍 넘어 나이까지 살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밟고랑처럼 주름은 깊었지만 표정은 온화하고 어린 아이처럼 해맑았다. 작은 섬마을에서 '젊은 여자가 할머니가 되도록 혼자 살아온 세월을 어찌 다 말로 하겠소?'며 말을 잇는 표정은 한도, 원망도 없이, 그저 편안해 보였다.

거의 한평생을 일만 하고 살아오면서도 "할머니 같은 얼굴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묻자 대답 대신 빙그레 웃기만 하셨다. 그녀의 얼굴은 자연이었다.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기고



장택규

그림자 금융과 우리의 대응

<Shadow banking>

으로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의하면 새도우 뱅킹(shadow banking, 그림자 금융 또는 유사 금융으로 번역)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증개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처럼 철저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세금 부과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를 의미하는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와는 다른 의미이다.

금융위기는 불거지기 전 새도우 뱅킹은 은행의 기능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내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 및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새도우(그림자)라는 말이 의미하듯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예금자보호와 같은 법적 보호장치가 아닌 사적 보호장치에 의존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새도우 뱅킹 관련 기관의 수가 많고 금융혁신 등으로 거래 내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일일이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변동성이 큰 단기 시장성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금융상품 매입 또는 장기 대출상품으로 운용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급변하여 금융시스템을 왜해시킬 수 위험성이 잡재해 있다.

새도우 뱅킹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신용보증기관 등 비은행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MMF(미니마켓펀드)를 비롯한 각종 펀드, 자산유동화증권,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새도우 뱅킹 규모는 1268조원(약 1.0조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자산(2485조원)의 51.0%에 상당하는 큰 규모이다.

그러나 둘 규모는 미국(23.6조달러, 2010년기준)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비율도 10.2%로 일본(65.3%)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의 규제가 국제기준에 비해 엄격하여 새도우 뱅킹으로 분류되는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기관의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은 현재 은행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통관 등에서 취급하는 자산유동화증권, RP, MMF 등의 상품의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요국의 새도우 뱅킹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최근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기법의 도입 등으로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향후 금융권역간 구분이 약해지고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고위험·고수익 투자 유인이 커짐에 따라 새도우 뱅킹 시장도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잠재리스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융산업이 실물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새도우 뱅킹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직 크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전국적인 새도우 뱅킹 성장으로 인한 잠재리스크 증대는 지역의 금융수요자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새도우 뱅킹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면서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성장을 주의깊게 살펴보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전성 악화 시 타부문으로 위험 전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새도우 뱅킹 부문과 여타 금융권역간 연계거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등을 검토하여 국내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기고



고광삼

90% 몰표, 민주당 국회의원들 착각 말라

이다. 차지 타지역 주민들로부터 시대에 역행했다는 비아냥을 받을 법도 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왜 문 후보에게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왔는지 내막을 들어봐야한다.

광주의 높은 투표율은 지역민들이 현 MB 정부 5년간 지속돼온 호남 훌대를 겪으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의 열망으로 표출됐고 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이다.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초방법 승부가 펼쳐진 것도 전통적으로 야당 성향의 기반인 지역 표심의 응집력을 높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지역민들이 문 후보를 향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자신들에게 보내준 것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열망과 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민들이 문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정도로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계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대선 기간 광주·전남 19명의 국회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 제대로 지지 유세활동을 벌인 의원은 손으로 흡을 정도다. 일부 국회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드러냈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어느 당이든 패배에 따른 책임론이 부상되고, 이번에 민주당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누구보다 빠른 편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1년 6개월 앞으로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구도에서 별다른 선택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이들이 바로 광주·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일화에 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도가 높았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단순한 지역민 표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준엄한 경고하자 민주당 교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안 후보가 흘리는 눈물을 가슴속에 묻고 문 후보에게 모든 것을 다 믿은 지역민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쓰라린 아픔과 상처를 대신 보듬어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1년 6개월 앞으로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구도에서 별다른 선택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 언론인〉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4918/e-mail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호남 눈물 닦겠다”는 당선자의 말 주목한다

호남사람들이 민주당의 뒷발으로서 문재인 후보에게 마지막까지 몰표로 애정을 보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90%

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으나 기대와는 달리 문 후보가 악판한 것이다. 호남민들로선 착잡한 뒷걸음이다.

전폭적 지지에 대한 좌절감도 컸지만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소외와 훌대를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도 이 명박 정권 5년, 호남은 분노를 넘어 험담을 가진 지 오래다.

박근혜 당선 역시 ‘경상도 피’가 흐를 진 데, 지금까지 아집과 독선으로 보아 내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호남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박 당선자 대신 기간 호남을 찾을 때마다 “호남의 상처와 눈물을 짊어져야 하는 여려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호남 등 특별지역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동서화합과 국민대통

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대통합의 시작은 지역균형발전과 인사대통령”이라고 한 말도 기억한다.

또 박 당선자가 광주에 공약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차질없는 조성 등 다수의 현안과 전남에 제시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지원, 여수박람회장 일대의 해양레저관 광복구 지정 등의 여러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지켰듯이 그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는 “제2호남정권이나, 영남정권이나 하는 말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호남사람들도 ‘소외’나 ‘훌대’나 하는 퇴행적 말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박 당선자가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길 기대한다. 호남민들도 대한민국이 다시금 용비(雄飛)할 수 있도록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 점거농성 업무차질 안 된다

시교육청 점거농성 업무차질 안 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광주시교육청 점거농성에 대한 책임을 더해가면서 시교육청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마당에서 전막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이 지난 17일에는 교육감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장교육감은 지난 17일 이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나 의견차만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0일 오전에도 대책회의를 열고 수습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조원들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435명을 해고하기로 한 시교육청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

육청은 이들의 학교 업무비중이 크지 않아 과거와 같은 자원봉사 형태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농성의 장기화로 인해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까지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마다 울려대는 노조원들의 주장을 고집한다.

수백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물리적인 점거 농성으로 공공기관이 업무 차질을 빚는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 암자가 대